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완경대학교병원 5층 1관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6월 29일 수요일 (음 5월 25일) 제 159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 제10대 전북도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

# 의장 황현 · 부의장에 조병서 · 강영수

<제1부의장>

<제2부의장>

37표 중 20표 넘게 획득  
의장단 모두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은 오늘 선출

전북도의회 제10대 하반기 의장에 황현(익산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관련기사 3면>  
전북도의회는 28일 제334회 도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의장과 부의장 2명을 무기명으로 선출했다.  
이날 선거에서 황현 의원은 총 37표 가운데 25표를 얻어 12표를 얻은 이상현(남원1, 더불어민주당)의원을 눌렀다.  
제1부의장에는 조병서(부안2,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1표를 획득해 16표를 얻은 이성일(군산4, 국민의당) 의원을 이겼다.  
제2부의장에는 더민주 강영수(전주4) 의원이 총 투표수 34표(기권 1, 무효 3) 중 28표를 획득해 2표를 얻은 최은희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을 눌렀다.

이로써 제10대 전북도의회 하반기 의장단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게 됐다.  
황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민선6기 전북도정 및 교육행정이 반환점을 돈 시점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의를 전담인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전북 번영의 기틀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지난 4·13 총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재편된

도의회 하반기 의장단



황현 의장




조병서 부의장 강영수 부의장



28일 정읍시는 사업비 4억5000만원을 들여 지난해 12월부터 재건축에 들어갔던 내장산국립공원 내 우화정이 완공돼 오는 30일 준공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식 목조 팔각지붕 형태로 다시 지어진 우화정의 모습. <사진=정읍시청 제공>

## 도내 65세이상 인구 비중 17.8%

# 초고령사회 진입 눈앞 '초비상'

지난 2013년부터 3년동안 상승세로 3~4년안에 가능성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 등이 가속화 부추겨

전북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년 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8일 전주고용노동지청이 발간한 '2016 전북지역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의 주민등록인구는 187만명으로, 이 중 17.8%가 65세 이상으로 조사됐다.  
전북 고령 인구 비율은 2013년 16.7%, 2014년 17.2%, 2015년 17.8%로 최근 3년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속도라면 전북은 3~4년 안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청년 인구 유출과 농업 위주의 경제 구조가 맞물려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전주고용지청은 분석했다.  
고령화 지수 외에도 이 자료집에는

전북지역 노동시장의 인구, 산업, 경제구조, 고용 관련 지표 등 고용여건을 나타내는 다양한 통계가 수록됐다.  
지난해 도내 고용률(15~64세)은 64.2%로 2010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군별로는 진안군(78.9%), 장수군(77.8%)이 상위권을 차지해 농업인구가 많은 지역에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고용지청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집을 발간했다"며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후반기 도의회는 일찍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을 떠나 도민만 두려워하며 전북의 번영과 도민의 행복, 그리고 성숙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29일에는 각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신광영 기자

### ▶ 매일 INDEX

- 2면 안전전북 실현 위한 재난대비 돌입  
올 여름철 후반부 라니냐에 의한 강한 태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여름철 자연재난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한 대응시스템이 적극 추진된다.
- 5면 도내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율 저조  
도내 학교안전사고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지만, 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도내에 선 중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완주교육지원청 용진읍으로 이전

전북도교육청이 완주교육지원청 이전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완주교육지원청 신축 이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총140억원을 투자해 빠르면 오는 2019년까지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89번지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동안 완주교육지원청은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해 완주군 행정타운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완주지역 유관기관과 교육 협력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최근 완주군이 독자적인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지난 완주군수 선거에서 완주교육지원청 이전이 공약사업으로 제기되는 등 이전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면서 완주군이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등 적극 협력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 전주 덕진에 위치 행정타운과 거리 멀어 빠르면 2019년 예상

지난 6월 완주군이 '완주교육지원청 이전 적극 협조계획 알림' 공문을 도교육청으로 보내와 교육재산 중 매입 가능한 토지에 대해 매입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을 계기로 신축 이전 작업이 급물살을 탄 것이다.  
현재 완주교육지원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한 것도 이전 작업을 서두르게 한 요인이다.  
이전 예정지는 완주군청을 비롯해 완주군의회, 완주군립중앙도서관, 완주문예회관 등이 밀집돼 있는 행정타운이다.  
도교육청은 전북도지방교육재정심의회와 8월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설계용역, 2019년 1월 준공을 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0억원, 건축비 130억원 가량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완주교육지원청 이전은 완주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완주군청 등 유관기관의 교육협력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모든 것을 다시 창작!

Re-Think, Re-Design & Make

「전라북도 콘텐츠코리아랩」



당신만의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곳!

「전라북도 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작/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것이 무료”

홈페이지 : <http://jbckl.or.kr>  
주 소 : (우)54966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37  
연락처 : 063) 282-2464



